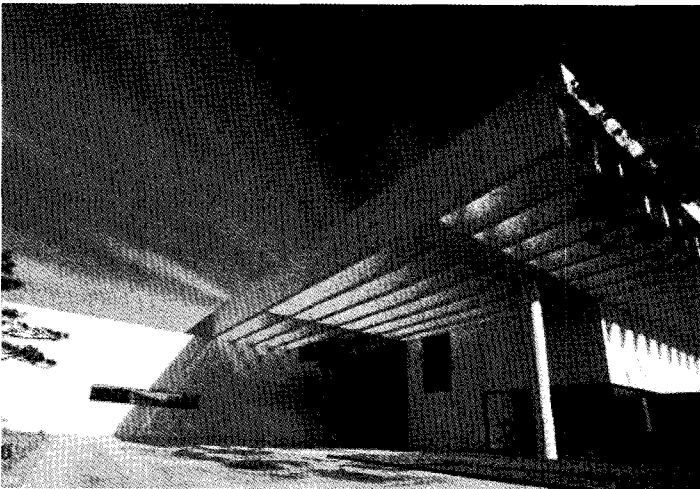


이응노미술관



이응노미술관 전경

고암 이응노는 1904년 충청남도에서 태어나 홍성과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무대를 세계로 넓혀갔던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고암은 해강 김규진 문하에서 문인화를 익혔으며, 1924년 청죽으로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여 미술계에 등단했다. 새로운 미술에 대한 갈구로 1935년 독일한 고암은 근대적인 미술과 접하면서 전통적인 사군자와의 자연을 사경한 실경산수들은 그의 화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고암은 김영기, 장우성 등과 '단원연구원'을 조직

하여 새로운 한국회화를 개척한다는 기치아래 활발한 작품 활동을 전개했다. 6.25발발 중에는 <피난민>과 같이 시대상과 서민의 삶을 반영하여 전쟁 작품들을 다수 제작하는 한편으로 국전의 폐단을 지적하는 등 화단에서 재야미술인으로서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1957년 뉴욕 월드갤러리 하우스 주최 한국현대미술전에서 자연을 해체하여 묵선과 리듬의 자유분방한 조형으로 해석한 반추상적이고 사의적인 작품을 선보인 얼마 후 도블하여 앵포르멜을 주도한 파케티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음으로서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1964년에는 파리의 동양미술관인 세르누쉬 미술관 내에 동양미술학교를 세웠다. 이곳에서 고암은 유럽인들에게 동양미술을 소개하고 가르치며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며 서양화단과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67



이응노 화백과 부인 박인경 여사

년 이른바 동백림 사건은 고암에게 있어 인간의 실존과 조국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고암이 감옥에서 민중과 자유에 대해 고민하면서 인간의 실존과 예술이 결코 유리될 수 없다는 의식을 뚜렷이 갖게 된 때이며 이러한 의식은 80년대 <군상시리즈> 작업에서 표출되게 된다. 옥고 후 그는 파리로 돌아가 <문자추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이때의 문자추상은 전의 그것과 차별화되어 발목과 마티에르 효과 보다는 문자자체의 기하학적 형상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문자추상이 70년대 그의 작품의 주류를 이루지만 전적으로 이것만 고집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양한 소재와 양식으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더욱 확장시켜 갔다.

1980년대에 고암은 광주항쟁과 때를 같이하여 <군상시리즈>작품을 제작하여 민중들의 호소와 외침을 회화적 구성으로 옮겼다. 이는 40, 50년대 현실 참여적 작품들 그리고 60, 70년대의 추상 작업을 통하여 꾸준히 등장하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군상시리즈>작품에서 응결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람은 시위 군중을 연사하고 유럽 사람은 반핵 시위로 이해하기도 하는 이 작품들 속의 군중을 고암은 현대사회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익명의 주체들로 폭넓게 해석한다. 무리를 지은 인간상의 작은 형태로 화면을 점차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작품들은 고암의 탁월한 구성력으로 조율되어 무질서한 대중이 아니라 내적질서, 혹은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합심해 향해기는 민중의 모습을 암시해 준다. 선을 따라 형성되는 율동성 그리고 자유롭고 정확한 필력은 인간의 원초적 생동력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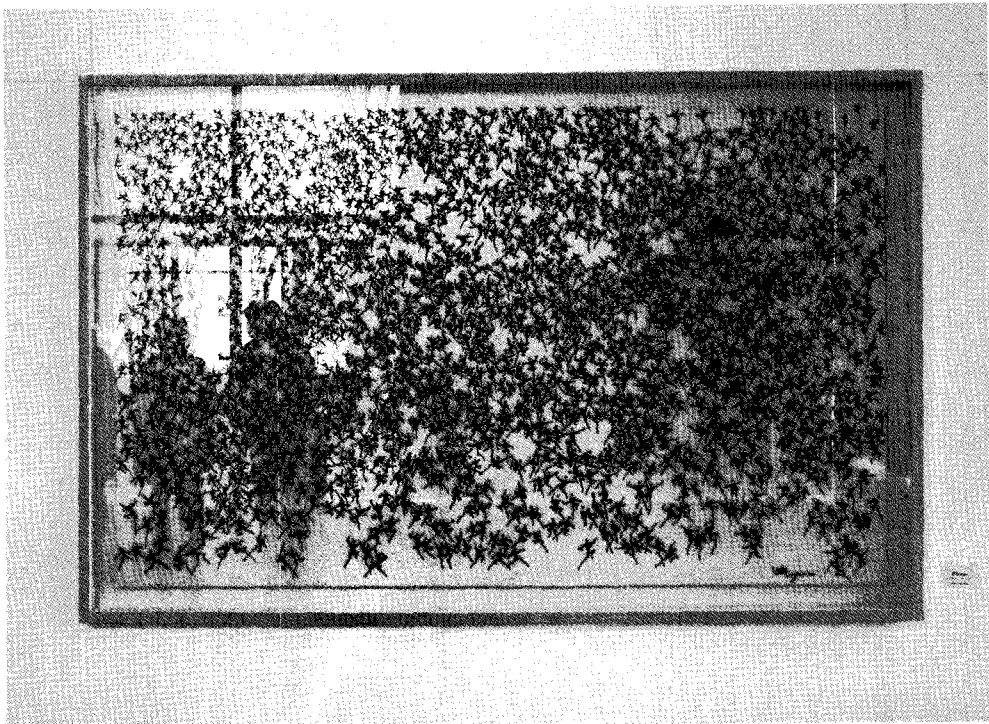
고암은 한 시점에 안주하지 않고 역사와 시대의의식에 발 맞춰 시기별로 새로운 화법을 탄생시켜 왔다. 그러나 그의 작품세계는 단절된 양식의 연속이 아니라 다양한 양식

파리 작업실에서



과 소재들이 공존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세계로 파악될 수 있다. 당대 사회 현실을 과감히 화폭에 담는 사실주의적 성향부터 순수 조형적 실험까지 오가는 그 큰 진폭이 바로 자신의 예술적 독자체인 것이다. 1977년 또 한번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고암은 무화전을 끝으로 국내 활동이 중단되었다. 1989년 그는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파리에 서 생을 마감했다. 고암은 일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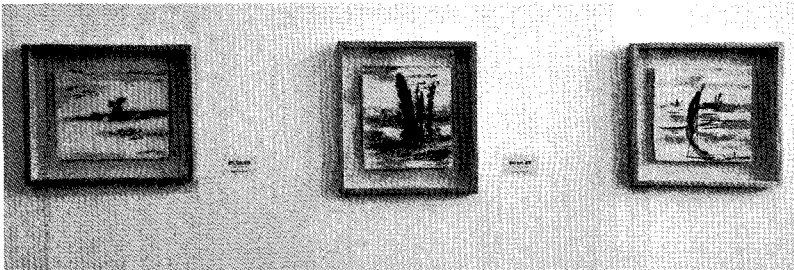
동안 일제 식민지 시기, 해방과 6.25전쟁, 민주화 과정의 아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치열한 작품 활동을 했다. 아마도 그를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지목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인 군상(群像)



위의 설명과 같이 고암 이응노 화백은 우리 지역의 세계적인 작가이다. 이런 훌륭한 작품들을 대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전발전포럼 편집위원들은 두 번째 현장탐방으로 대전이응노미술관을 찾아갔다. 대전시립미술관 옆에 위치한 대전이응노미술관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넘어 평생 예술에서 삶의 가치를 추구한 고암 이응노화백의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7년 5월에 개관하였다. 미망인 박인경 여사(대전이응노미술관 명예관장)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정신을 기리고 후대로 이어주는 매개적 역할을 하도록 516점의 작품을 기증하여 현재 고암에 대한 연구, 전시,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묵 산수풍경

현재 이응노미술관은 상설전과 기획전으로 나누어서 전시를 하고 있다. 상설전은 연중 진행되며 미술사적 가치와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소장품을 전시함으로써 미술관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에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획

전은 2010년 2월 21일 까지 세 번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각각의 기획전은 차별화된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고암의 작품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고암의 산수 풍경전” 이란 주제로 고암 이응노화백의 수묵 산수풍경을

통하여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펼쳐지고 있었다. 문자추상이란 독특한 분야로 대표되는 고암의 작품은 한지, 닥지, 돌, 세라믹 등 다양한 재료들로 작품활동을 했다. 상설전의 전시작은 총14점으로 전통 동양화의 관념에서 탈피한 독자적인 양식의 대나무와 동양의 문자성에 국제적인 색감과 표현으로 탄생된 글씨예술인 문자추상, 본인의 작품 제목을 「평화」라 붙이고 싶었던 고암의 말처럼 공생공존(共生共存)의 민중의 삶을 표현한 군상, 문자를 심미적 대상으로한 예술 서도(書道)작품인 수(壽)자와 예(藝)자가 있다. 우리는 미술관이 이끄는 시선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지호 관장과 조현영 학예사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우리는 상설전에 대한 감상을 마치고 기획전인 「고암의 시선 70-80년대의 산수풍경」작품들이 있는 곳으로 발을 옮겼다. 미술전시회에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편집위원들에게 고암 이용노미술관의 방문은 무척 깊은 인상을 주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암의 그림세계의 내면에는 일반적으로 한국 전통의 서예를 근간으로 하는 군무를 얼핏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상설전에서 기획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어딘선가 눈에 익은 그림이 들어온다. 다름 아닌 물과 나무가 어울린 풍경을 화폭에 담아 놓은 작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풍경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물을 소재로 한 것들이 많았다. 왜 그랬을까....!! 왜 물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 것일까....!! 눈으로는 작품을 가슴으로는 의문을 남기면서 전시관을 뒤로 하였다. 앞으로 이용노미술관이 대전시민의 심미적 교양을 더욱 함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술관 탐방을 마쳤다.

「이번 현장탐방에 많은 도움을 주신 대전시립미술관 이지호 관장님과 고암 이용노 화백의 작품을 감상하는데 도움을 주신 곽영진, 조현영 학예연구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람일정 및 관람료

○관람시간

- 3월~10월 10:00-19:00(금요일 21:00까지)
- 11월~2월 10:00-18:00(금요일 21:00까지)

○휴관일 |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관람료

- 어른(25~64세) : 500원(개인), 400원(단체/20인이상)
- 어린이, 청소년, 군인 : 300원(개인), 200원(단체/20인이상)
- 노인(65세이상, 유아(6세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무료

○이용노미술관 찾아가는 길

- 버스 :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911번 버스로 환승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정류소 하차)
- 지하철 : 정부청사역 하차(도보로 20분)
- 관람 및 예약 문의 : 042-602-3270
- 홈페이지 : www.ungnolee-museum.daejeon.kr

